\*저희 중고 경매 사이트 이름은 Used-Auction 줄여서 UA입니다.

**<The Problem>**

중고거래시장은 많이 발전되어 누군가에겐 필요 없는 물건이 다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이 있는데, 많은 매물들을 가지거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보통의 중고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업로드할 때 가격을 정해서 올린다. 이 때문에, 구매자는 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가격흥정을 해야 하고, 네고가 가능한지 채팅을 열고 확인하다 보면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겪게 된다.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여러 채팅을 받게 되고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에서 보완된 UA는 ‘개인 경매’ 시스템으로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판매자의 부담 또한 덜어줄 것이다.

**<Scenarios>**

UA에 들어가면 관리자(admin)와 중고거래 사용자(user) 2가지 형태의 join user type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자(admin)는 지정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따로 관리자(admin)가 사용이 가능한 Navigation이 화면에 추가가 된다. 관리자(admin)는 신뢰할 만한 사용자(user)인지 판별을 위해 해당 Navigation을 통해 가입한 사용자(user)들의 정보 목록을 볼 수 있고 부적절한 사용자(user)를 사용자 정보목록에서 탈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고거래 사용자(user)는 판매자와 구매희망자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판매자는 판매할 물건을 업로드하고 판매 기간, 상한가, 시작가를 정하여 입력한다. 그 이후에,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일반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이 완료되면 판매자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 또는 지정된 상한가를 입력한 사람과만 1대1 채팅이 열리게 된다.

구매자는 중고 물품을 고를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매물을 찾을 수 있다. 물건 별 카테고리를 통해 찾을 수 있고, 지역 별 카테고리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볼 수도 있다. 입찰자들이 많은 인기 매물을 볼 수도 있으며, 구매자가 관심있게 봤던 물건들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매물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른 물건들을 선택하여 관심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

거래가 끝나면 사용자들끼리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매너있는 사용자를 칭찬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을 신고해 사기나 비 매너 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와 거래 완료 비율을 토대로 만들어진 등급으로 유저들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